

# 초기 한국어 성경의 저본 판정을 위한 성경 서명의 음역어 대비 연구\*

유경민(전주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신약 성경의 서명 수용 방식 |
| 2. 한국어의 표기법        | 5. 결론              |
| 3. 구약 성경의 서명 수용 방식 |                    |

## 1. 서론

한국어 성경의 번역과 번역 성경의 보급이 한글 사용의 확산을 비롯하여 한국어의 현대적 문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현대 사회의 온라인 정보의 이용 환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서양 외래어<sup>1)</sup> 탐색의 속도 저하나 실패율에 번역서의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7613).

1)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차원에서 '외래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 외국어가 널리, 자주 쓰여 국어에 정착·동화된 것을 외래어라고 한다.

한글 표기가 영향을 주고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성경 원전을 저본으로 한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베드로’로 표기되어 있지만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번역된 한국어 성경에서는 ‘피들’<sup>2)</sup>이나 ‘피득’<sup>3)</sup>으로 확인되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인명임에도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번역 성경에서는 ‘피터’로 확인되기도 한다. ‘애굽’과 ‘이집트’, ‘요단’과 ‘요르단’,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등도 동일 지명이 한글로 각각 다르게 표기된 예이다. 또 ‘랍비’와 ‘선생’, ‘사밧’과 ‘안식(일)’, ‘사탄’과 ‘악마, 마귀’처럼 다르게 번역된 예도 서로 관련된 단어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은 혼돈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표기(異表記) 형태들은 온라인상의 탐색 문제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 대상임에도 번역본마다 다르게 표기된 음역어 혹은 번역어 목록을 관련어로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인명과 지명의 음역어를 통해 번역에 활용된 저본이 무엇인지 탐색해 가는 과정과 그 확정 방법의 모색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경전서 개역』(1938년) 이전의 한국어 초기 성경을 대상으로 성경 66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서명의 번역 유형을 정리하고 목록화한 후 음역된

---

그러나 이미 우리는 광속의 매체 시대에 살고 있고, 넘쳐나는 교류로 인해 부각되는 신어 표기의 문제를 생각하면, 외국어와 외래어 표기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또, 외래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외래어로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김하수(1999:248)). 그러나 현 표준어 규정 제2항의 해설 부분에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 명사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인명, 지명과 외국어까지 외래어 표기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2) ‘피들’은 모리슨 중국어 번역본(1832년)을 저본으로 중역된 John Ross의 한국어 번역본(1883년)에서 확인되는 형태이다.
- 3) ‘피득’은 Malcolm C. Fenwick의 번역본(1893년)과 Henry Gerhard Appenzeller의 번역본(1896년)에서 확인되는데, 중국어 관화본(1872년)을 저본으로 중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부분을 중심으로<sup>4)</sup> 원전(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스어<sup>5)</sup> 신약 성경)과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대비하여 한국어 성경 번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판정하는 과정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에서 고유명사 외의 음역어<sup>6)</sup>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논문으로 진행한다. 1882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번역 성경 전체, 국한혼용문 성경에서도 음역어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당시 문헌 작성의 대부분이 국한혼용문이었고, 초기 국한혼용문 성경이 가능한 한 많은 한자어를 쓰고자 했던 것을(유경민 2019:206) 염두에 두고 유추해보면, 번역자들은 한글이 서양어의 발음을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 
- 4) 『한국성경대전집01-60』(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02년)에 실려 있는 역대 한국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지 넣은 신약전서 가로 쓴 한글판』(1958년)까지도 인명에는 한 줄 직선, 지명에는 두 줄 직선, 아람어에는 한 줄 물결선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세로로 쓰인 성경에서는 해당 단어의 오른쪽에, 가로로 쓰인 성경에서는 아래쪽에 줄을 그어 해당 단어가 음역어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문단을 나누는 ‘각설표(〇)’, 주(주), 하나님 등의 존칭어 앞을 띄어 쓰는 ‘대두법(擡頭法)’과 함께 초기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시법’이다. 음역어에 옆줄과 밑줄로 한 줄 또는 두 줄 직선이나 물결선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한국어 성경 간행 초기(1882년)부터 표시법 자체가 사라질 때(1950년대)까지 동일하게 지켜졌다.
  - 5) 그리스도교의 신약 성경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헬라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스스로를 헬렌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헬레네스(Hellenes)’라고 일컫는 것을 고려하면 ‘헬라스(Hellas)’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헬라어 대신 헬라스어라고 칭한다. 또, 우리가 ‘희랍’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중국에서 ‘希臘(지역에 따라 /Xīlà/ 또는 /hei laap/ 또는 /hi lap/으로 발음)’으로 음역한 것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간접 차용한 결과이다.
  - 6)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인의 언어인 헬라스어로 쓰여진 것을 원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확인된다. 신약 성경에서 아람어로 표기된 부분(20종)은 단어뿐만 아니라 짧은 선언이나 경구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음역 표현’이라고 해야겠으나 본 연구자는 짧은 선언이나 경구도 음역어로 함께 다룬다. 이는 다어(multi-words) 형태의 의미 단위(chunks)를 중심으로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Michael Lewis, 1993:vi)이라는 언어 교육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있는지를<sup>7)</sup> 인지하고 한글로 원음을 살려 적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국어 그리스도교<sup>8)</sup> 성경을 검토해 보면, 'Olive'에 대한 '오리밭', 'Paul'에 대한 '반로/바오로'와 같은 표기가 확인된다. 현대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밭', '반'와 같은 표기 방식이 원음을 그대로 살려 적기 위한 노력으로 활용된 것이다. 서양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한 또 다른 방식은, 『보라달로마인서(保羅達羅馬人書)』(1890년, Henry Gerhard Appenzeller)라는 한글전용문 성경에서 바울 혹은 바오로(Paulus)를 '保羅'라고 표기한 중국어 성경의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보라'라고 표기한 것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라달로마인서』(1890년)의 본문에서는 '바울'을 <그림1>의 오른쪽쪽과 같이 '보로(오른쪽 실선)'라고 표기한 사실이다. 목차나 표지의 표기와 본문의 표기가 다른 이유는 본문은 번역자들이 작성하고, 목차 작업은 본문 번역과는 별개로 책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로(Alexander Kenmure의 『켄뮤어 서신』(2006), 유경민 (2019: 95-96)), 번역자와 편집자의 음역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 연구에서

- 
- 7)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鄭麟趾 序)문에는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 자연의 문자가 있어야 하니(有天地自然之聲, 卽必有天地自然之文),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적을 수 있도록 새 문자를 만들었으며(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새로 만든 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하나절이면 배우고, 우매한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임을 밝힌 근거가 된다.
- 8) '그리스도교'는 개신교와 가톨릭교를 아울러 지칭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 성경을 역사언어학적 연구 텍스트로 다루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용어이다. '기독교'는 헬라스어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를 중국어 성경에서 '基利斯督(기리스뚜)'로 음역하고, 후에 줄여 '基督'이라고 한 것을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여 정착시킨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의 본문에서는 초기 성경에서부터(예외적으로 Malcolm C. Fenwick (1919년)이 번역한 『신약전서』에서만 '기독교'로 번역되어 있다) '키리스토/키리스또/크리스도'와 같이 원전을 음역하여 표기하였고, 현대 한국어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어학적으로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성경 음역어에 대한 연구의 일차적 작업으로 66권 서명의 번역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다.



<그림 1> 『보라달로마인서』(1890년)의 표지와 본문의 표기 대조

<그림 1>은 초기 한국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울’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의 예이다. ‘보라’는 중국어 성경의 ‘保羅’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표기한 것이고, ‘보로’는 ‘保羅’에 대한 중국계<sup>9)</sup> 발음이 한글 표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어 성경에서 ‘바울, 베드로, 요한’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보라(保羅),’ ‘괴득

9) ‘보라’를 ‘보로’로 오기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만주어나 중국어 발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인명에 대해 펜워본(1893년, 1919년)의 본문에서는 ‘약나(若拿)’와 ‘요나(約拿)’라는 형태가 확인되는데, 그 서명은 『약한의 기록한 디로 복음』인 것처럼 이처럼 표지나 목차의 음역어와 본문에서의 음역어가 다르게 표기된 예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彼得), ‘약나(約拿)/요나(若拿)’라고 표기되기도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일 원전에 대한 번역어들이기 때문에, 즉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본 연구는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 연구사의 밀도 있는 연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대역문으로 정리된 자료는 역사 언어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 어휘에 대한 서로 다른 한글 표기의 검토를 통해 번역본 간의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국어학적, 성경학적 연구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서 표기 중 ‘빙’은 15세기에 소실되었고, ‘빙’만은 순수한 국어 단어의 표기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국어사적 기술(이기문, 1998:116) 내용도 보완할 수 있다.<sup>10)</sup>

## 1.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초기 한국어 성경에서 외래어를 음역 표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서양어 성경을 저본으로 실제 서양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기는 경우 ② 한문(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원어의 음가와 상관없이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한 경우 ③ 한문(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한자를 중국식으로 읽어 표기한 경우이다. ③과 ①의 구분은 쉽지 않아 해당 번역본의 전반적인 번역 특징을 살펴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전의 ‘Αβραάμ’, 영어 성경의 ‘Abraham’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亞百拉罕’(『我等救世主耶穌新遺詔書』, Rovert

10)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심사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 19세기 말의 문헌에서 그 표기가 확인되는 것이 음운사적으로나 국어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설명하라는 말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대국어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빙’이 한국어 문헌에서 확인된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5세기에는 고유어 표기에만 쓰이고, 19세기 문헌에서는 외래어 표기에만 쓰였는지 등의 문제는 더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 이상의 기술은 차치하였다.

yà bó lā hǎn

Morrison(馬禮遜), 1832년)이나 ‘亞伯拉罕(『新約全書』, 위원회역본, 1852년)’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압라함(『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비쇼서신』, John Ross, 1885년)이나 ‘아브라함(『요한복음』, Henry Gerhard Appenzeller, 1896년)이나 ‘아빅랍한(『신약전서』, Malcolm C.Fenwick, 1919년)’ 등으로 번역하였다. ‘압라함’으로 번역한 것은 서양어를 음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빅랍한’으로 번역한 것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펜젤러 번역본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때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 확실시되므로 인명의 음역도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성경 번역과 같이 동일 원본에 대한 여러 번역본이 존재할 경우 음역 표기에 대한 이본 간의 대조적 연구의 결과는 해당 번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저본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인명이 펜워본(1893년, 1919년)에서는 ‘약나(若拿)<sup>ruò nà</sup>나 ‘요나(約拿)<sup>yue nà</sup>’로 번역되고, 로스본(1883년, 1885년)에서는 ‘요안니’로 번역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펜워는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약한의기록한디로복음』과 『신약전서』를 번역하였고, 로스는 원전이나 영어 성경을 저본으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와 『예수성교성서 요안내복음 이비쇼서신』을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로 표기된 음역어는 본래 서양어의 발음을 음역하였겠으나 중국어로 음차 표기한 한자를 우리가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면서 한국어 성경에는 ‘약나, 요나’와 같이 본래의 서양 발음과 전혀 다른 발음으로 표기되어 정착된 예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기의 여러 번역본의 음역어를 대비하여 번역 저본을 밝히기 위해 먼저, 역대 한국어 성경 자료의 번역사를 정리한 후, 초기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저본의 가능성이 있는 중국어 성경까지 직접 전산 화하여 자료기지(data base)를 구축한 후 장·절 대비문을 만들었다. 연구에 필요한 문장-구절-어절 단위별 대조 분석을 진행한 후 음역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중국어 성경과 함께 원전과 영어 성경도 대비해야 하는데, 서양어 성경은

이른 시기의 자료부터 국내외 여러 웹사이트<sup>11)</sup>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 음역어를 찾아 <표2>와 같이 목록화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산화한 중국어 성경의 목록은 <표1>과 같다.

간행연도	번역자	서명
1832년	Robert Morrison	『我等救世主 耶蘇新遺詔書』
1852년	COMMITTEE OF DELEGATES	『新約全書』
1864년	Elijah C. Bridgman	『新約全書』
1886년	大美國聖經會	『官話 新約全書』
1886년	英牧師楊格非重譯	『新約全書 (淺)文理』
1889년	英牧師楊格非重譯	『新約全書 官話』
1902년	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新舊約聖經』
1919년	大英聖經公會	『新舊約全書』

<표 1> 직접 전산화한 중국어 성경 목록

<표 1>의 자료를 활용한 대역문에서 음역어들을 살펴보면, 위원회역(1852년)과 양격비역(John Griffith, 1886년)이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에 많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더라도 특정 중국어 성경의 표기가 전적으로 그대로 반영된 한국어 번역본은 없다. 이는 당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경만을 놓고 중역(重譯)을 한 것이 아니라 참조할 만한 여러 성경을 보며 최선의 번역을 추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11) 성경 소프트웨어(<https://kr.logos.com/>),

온라인 성경 원문 사이트(<http://www.biblegateway.com/versions>),

중국어본 성경 사이트(<http://bible.fhl.net/ob>),

호주국립도서관(<http://www.nla.gov.au>),

다국어 성경([www.holybible.or.kr/](http://www.holybible.or.kr/)).



결과 <표 2>와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음역 표기가 시도되었던 것이다.

원전 및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
헬라스어: Ἰωάννου (요12)안누-소유격)	ruò ná ruòhàn 若拿, 若翰 (1832)	요안누 (1883, 1885) 약나 (1893) <sup>13)</sup>
헬라스어: Ἰωάννης (요안네스-주격)	yue ná 約拿 (1852, 1886)	요나 (1883, <sup>14)</sup> 1885, <sup>15)</sup> 1896, <sup>16)</sup> 1906, <sup>17)</sup> 1919, <sup>18)</sup> 1925 <sup>19)</sup>
KJV(1611): Iona RV(1881): John	yuehàn 約翰 (1919)	약한 (1893) 요한 (1939) <sup>20)</sup>

<표 2> '요한'의 번역 대비

전산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표 2>와 같은 실증적 대비는 자료의 신뢰성과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보장해줄 것이다.

신학이나 종교학 영역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어학 분야에서도 그리스도교와 한국어, 성경과 한국어 혹은 한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초기 성경의 표기에 대한 연구는 김윤경(1938년)의 성경 철자법에서 시도되었다. 김윤경(1960년)은 '성경의 문체와 철자법'을 조선총독부 문체와 주시경 학파의 문체와 같은 급설명 하면서 한글맞춤법 제정 과정에 성경의 문체와 철자법이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 하였다. 송민(1973년)은 천주교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표기와 음운의 문체를

- 12) '이오안누'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에수스'를 '예수'라고 음역한 것과 같이 음절 축약이 가능한 환경인데 번역 과정에서는 대부분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 13) 1893년, 『약한의기록한데로복음』, 한국성경대전집5,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4) 1883년, 『요안내복음』, 한국성경대전집1,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5) 1885년, 『예슈성교성서요안내복음이베쇼서신』, 한국성경대전집3,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6) 1896년, 『요한복음』, 한국성경대전집6,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7) 1906년, 『신약전서』, 한국성경대전집12,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8) 1919년, 펜워 『신약전서』, 한국성경대전집22,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19) 1925년, James Scarth Gale 『新譯 신구약전서』, 한국성경대전집27,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 20) 1939년, 『신약 개역』, 한국성경대전집44,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영인본.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근대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경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최성규(2006년), 민영진·전무용·조지운(2006년), 유경민(2013년) 등은 한국어 성경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입증하며 표기법,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국어사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초기 한국어 성경 중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은 『누가복음』(1882년), 『예수성교전서』(1887년), 『신약전서』(1900년, 1906년) 등이며 조재운(1982년), 이응호(1983년), 정길남(1983년), 서정욱(1986년), 최태영(1991년), 최성규(2006년), 유경민(2014년) 등에 의해 주로 다루어졌다. 각각 최초의 번역본<sup>21)</sup>으로서의 의의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어학계에서의 성경 연구는 초기에는 번역 문체와 어휘, 맞춤법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었고, 점차 시대 문화적 요소와 함께 근대국어의 특징을 드러내는 연구로, 음운 연구 및 방언 연구로 그 영역의 폭을 넓히고 있다. 외래어 표기에 관심을 둔 논의로는 나채운(1971년)을 들 수 있는데, 로스 번역본에서는 한자어의 한국식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고,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영어의 음가를 한글로 표기하였음을 밝혔다. 이응호(1983년)는 중국식 한자어를 한글로 음역한 고유명사를 설명하였고, 정길남(1985년)은 그리스어, 한자어,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예를 분류하여 각각 설명하였다.

그동안의 논저들에서는 개역본(1938년) 이후의 번역은 히브리어나 헬라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번역되었으나 초기 한국어 번역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저본, 혹은 참조본으로 번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중국어 성경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성경을 저본으로 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외래어 표기를 통해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이나 번역 저본의 표기를 한국어 성경에서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초기 번역본(『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로스, 1882년)부터 『성경전서 개역』(1938년) 이전까지)을 대상으로 서양어를 직접

21) 『누가복음』(1882년)은 한국어 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번역서이고, 『예수성교전서』(1887년)은 최초의 성경전서 번역본이고, 『신약전서』(1900년)는 성서번역위원회 의 첫 번역본인 시험역본이고, 『신약전서』(1906년)는 최초의 공인역본이다. 『구약전서』는 1911년에 출판되었다.

음차하여 표기한 ‘직접 음역어’(여호수아, 다니엘, 아모스 등), 조선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자로(한자) 표기한 것을 한국어로 중역(重譯)하며 한글로 한자음을 표기한 ‘간접 음역어’(창세기, 민수기, 아가 등)로 나누어 살핀다. 또, 이를 활용하여 번역 저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던 초기 번역본의 저본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 2. 한국어의 표기법

표기법은 문자로 표현하는 규칙 전반을 가리킨다.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한 부분으로 제시된 이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년), <들은 말 적는 법>(1948년),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법>(1959년), <외래어 표기법>(1986년)으로 개정되며 1988년 <한글 맞춤법><sup>22)</sup>까지 ‘로마자 표기법’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규정한 표기법이다. 한국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언중들은 맞춤법보다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은 의무나 강제성이 약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어문 규범의 일부로 규정된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어 규범 안의 내용으로서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관련하여 원리를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제정된 규정이다. 한글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굳어진 관용을 존중한다는 표기의 규정 때문에 변동 혹은 다른 표기 형태의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구본관 외, 2011: 3~4). <표 3>은 어문 규범으로서 정리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2017.03.28. 수정)의 핵심 원리이다.

22) <한글 맞춤법>(1988년) 제1장 제3항에서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외래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1986년)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제1장 기본 원칙 <sup>23)</sup>	제1항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sup>24)</sup>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sup>25)</sup>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제4장 <sup>26)</sup>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제1장~제3장의 규정을 따르되, 포함되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용되는 관용 표기가 있으면 이를 따른다.	
	제2 절	제1항	중국의 과거인의 인명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항	현재 쓰이지 않는 지명은 우리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제4항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예: 臺灣 타이완, 대만)

<표 3> 현행 외래어 표기법

<표 3>과 같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① 표기의 기본 원칙, ② 표기 일람표, ③ 표기 세칙, ④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기본

- 23) 기본 원칙 안에서 ‘제1항~제4항’과 ‘제5항’은 무엇이 먼저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제4장 제2절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복수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그 적용의 선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차치(且置)한다.
- 24) 외국어의 1음운이 한국어의 여러 음운에 대응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어의 1음운을 두 개의 한국어 기호로 표기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 25) 한국어의 자음, 즉 격음/경음, 평음 표기의 혼기 문제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2항 대립 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평음-경음-격음’의 3항 대립 구조의 언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한국어의 3항 대립 체계로 인한 혼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껌, 뺨, 빨치산, 빵, 뺨드’ 등과 같은 경음 표기 외래어가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경음 표기를 인정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만하다.
- 26) 제2장은 표기 일람표로서 국제음성기호부터 러시아어까지 19개의 표를 통해 해당 언어의 자모와 한글 표기를 대조하여 ‘보기’를 제시하고, 제3장은 표기 세칙으로 같은 방식으로 영어에서 러시아어까지 21개 언어에 대한 한글 표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원칙은 다섯 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규정 표기와 관용 표기가 언중의 언어 인식과 언어 사용 양상 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구본관 외, 2011: 5).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인 ‘소리대로 적되’의 기준과 같이 한국어 음운 체계 안에서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원음주의) 방식을 분명한 원칙으로 하고, 언중들에게 깊이 뿌리 내린 발음의 표기는 그대로 인정하는<sup>27)</sup> 방식(속음주의)을 한글맞춤법에서의 복수 표준어처럼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은 한국어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많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출판하였다. 한국어 번역 성경의 책명은 의역과 음역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어의 직접 음역과 한자어의 간접 음역이 섞여 있다. 현대 한국어 번역 성경의 책명을 정리한 일부를 보이면 <표 4>와 같다.

	책명			종류
	한국어	영어	중국어	
구약	창세기	Genesis	創世記 <small>chuàng shì jì</small>	의역
	출애굽기	Exodus	出埃及記 <small>chū ài jí jì</small>	지명
	민수기	Numbers	民數記 <small>mín shù jì</small>	의역
	여호수아	Joshua	約書亞記 <small>yuē shū yà jì</small>	인명
	룻기	Ruth	路得記 <small>lù dé jì</small>	인명
	사무엘하	2 Samuel	撒母耳記下 <small>sā mǔ ěr jì xià</small>	인명
	열왕기상	1 Kings	列王記上 <small>liè wáng jì shàng</small>	의역
신약	마태복음	Matthew	馬太福音 <small>mǎ tài fú yīn</small>	인명
	요한복음	John	約翰福音 <small>yuē hàn fú yīn</small>	인명

27) 관용 표기는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Acts	使徒行傳 <small>shǐ tú xíng chuán</small>	의역
	로마서	Romans	羅馬書 <small>luó mǎ shū</small>	지명
	야고보서	James	雅各書 <small>yǎ gē shū</small>	인명

〈표 4〉 한국어 성경의 서명 표기의 예

‘룻기’ 같은 경우, ‘룻’은 서양어를 음역한 것이고, ‘기(記)’는 원어와 상관없이 기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동양식 서명 표기법이다. 고유 명사(서명)의 첫 부분을 음역하여 표기한 후 중국어 성경에 쓰인 보통 명사 ‘기(記), 서(書), 복음(福音)’ 등을 첨가하여 ‘서양어 음역+중국어 의역’의 형태로 만들어진 서명(書名) 유형이 많다.

## 2.1. 서양어의 직접 음역 표기

한국에 개신교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던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어 문법서를 쓰고, 한국어 활용을 위한 이중어 사전을 만들었다. 목표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뜻을 담지 않고 알파벳처럼 발음 위주로 실제와 유사하게 적어 음역 표기한다.<sup>28)</sup> 이 경우 음역하고자 하는 원어와 자·모음 문자 대응을 한 것처럼 보이는 예도 있지만 전체 발음을<sup>29)</sup>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한말 주한 영국 공사의 보고서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따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인은 영어에 능숙하다’는 내용이 있다.<sup>30)</sup> 이러한 평가는 한글이 표음문자인 것과

28) 저본의 외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고유명사는 대부분 한글로 음역을 하지만 간혹 의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Olive Tree’를 ‘올리브 나무’와 ‘감람 나무’로 번역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29) 예를 들면, ‘전라도’를 ‘Jeon la do’가 아니라 ‘JeollaDo’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원리이다.

30) 한겨레신문 2020. 06. 22. “한글의 역설”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어에 대한 한글 전사법이 온전히 정착되고 통일된 체계로 정리되기 전,<sup>31)</sup> 초기 번역 성경에서는 동일 지명이나 인명이 번역자별로 다르게 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활용한 한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어떤 문헌보다 서양의 인·지명이 많고, 외국인이 직접 음역어 표기에 관여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번역 성경은 서양의 원음이 어떻게 한글화되었는지 그 표기의 원리를 살펴보기에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예를 들면, ‘바로/바오로’와 같이 직접 음역하기도 하지만 1890년 아펜젤러가 번역한 『보라달로마인서』의 ‘보라(保羅, /바오뤄/)’처럼 중국어 성경을 중역의 저본으로 간접 음역하기도 한다. 그런데 김형철(1999:120)에서는 서양의 인명은 간접 음역어의 한글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지명은 한글 표기 간접 음역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검토해보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서양어의 한자 음역어를 한글로 표기한 간접 음역

19세기 말, 서양의 근대 문물 및 사상의 유입 초기에 개념어뿐만 아니라 음역어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자어화한 것을 한국어에 수용한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며 해당 단어를 먼저 만들어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개화기 이후까지도 문헌어로서 한자에 비해 한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현실적 문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성경 번역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번역자가 앞선 선교지였던 중국어에는 능통하고 한국어는 잘 모를 경우 한자어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의 고유명사를 한자화된 형태로 받아들이다더라도 중국이나

31)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외래어 표기를 비롯한 표기와 체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켄류어 서신』(1904년 4월 29일, 7월 13일)에서 확인되는 수정 항목들에 대한 기록(옥성득·이만열 편역, 2006년)과 같은 선교사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한자어 발음까지 가져다 쓰지는 않았다. 한자 표기만 가져다 쓴 것은 문자 언어의 확산성과 관련될 것이다. 즉, 개화의 문물과 개념을 표기한 중국 한자어나 일본 한자어를 문자 언어로서 인지하고, 음성적으로는 한국 한자음으로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라사’는 몽골어에서 ‘로씨야’를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 ‘오+르스(Орос)’로<sup>32)</sup> 음역한 것을 중국어에서 ‘鵝/俄羅斯(Éluósī 어뤄쓰)’라고<sup>33)</sup> 다시 음역하였고, 그 한자어를 ‘아라사’라고, 한국 한자음으로 정착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유입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아라사’가 러시아에 대한 음역어라는 것, ‘아관파천’이 러시아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손/시온, 아핫/아하스, 압라함/아브라함’ 등과 같이 CVC 유형과 CVCV 유형이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음절 구조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음 종성어가 많지 않고, 모음의 종류가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정착된 외래어가 음성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 3. 구약 성경의 서명 대비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간행 이후 20여 년 동안 신약 성경의 번역에 주력했던 한국어 성경 번역자들은 1911년에서야 공인역본 『구약전서』를 출판했다. 신약전서의 간행 과정과는 달리 쪽복음서가 거의 간행되지 않고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출판되었다. 본 장에서는 39권의 서명을 대비하기 위해

32) 지식영의 『아학편』(1908년)에 어두의 ‘r’은 ‘으라’로(rice-으라이쓰), ‘l’은 ‘을’로(leaf-을니뜨), ‘wr’은 ‘을’로(write-우라이트) 표기한다고 설명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3) 일본어에서는 ‘露西亞’라고 음역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노서아’라고 칭하는 한국인도 있다.



최초의 공인역본 『구약전서』(1911년)와 게일 번역본을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서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히브리어	영어	웨레체브스키 (1902)	문리화합 역본 (1919)	공인역 (1911)	게일 (1925)	선환문 (1926)
תּוֹשַׁבְתָּי (브레쉬트)	Genesis	摩西一書 創世記	創世記	창세기	創世記	창세기 (改譯)
חומש (쉬모트)	Exodus	摩西二書 出伊及記	出埃及記	출애굽기	出애굽記	출애굽기 (改譯)
אֲרָקוּ (바이크라)	Leviticus	摩西三書 利未記	利未記	레위기	레위記	레위기 (改譯)
רַב־מִבְּרַח (브밋바르)	Numbers	摩西四書 民數記	民數記	민수기	民數記	민수기
מִדְבָּר (드바림)	Deuteronomy	摩西五書 申命記	申命記	신명기	申命記	신명기
עֵשׂוֹרָה (예호쉬아)	Joshua	約書亞	約書亞記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סִפְתוֹרִים (슈탐)	Judges	士師	士師記	스스기	士師記	스스기
רוּת (루트)	Ruth	路得	路得記	룻기	룻	룻기
לְאוֹמֵשׁ (쉬무엘)	1Samuel	撒母耳前	撒母耳記上	삼우엘 전	삼우엘上	삼우엘 상
לְאוֹמֵשׁ (쉬무엘)	2Samuel	撒母耳後	撒母耳記下	삼우엘 후	삼우엘下	삼우엘 하
מִלְכֵימֶלֶךְ (물라킴)	1Kings	列王上	列王紀上	렬왕기 상	列王記上	렬왕기 상
מִלְכֵימֶלֶךְ (물라킴)	2Kings	列王下	列王紀下	렬왕기 하	列王記下	렬왕기 하
סִימְחֵימֶלֶךְ (디브리 하이밋)	1Chronicles	歷代上	歷代志上	력더 상	歷代上	력더 상
סִימְחֵימֶלֶךְ (디브리 하이밋)	2Chronicles	歷代下	歷代志下	력더 하	歷代下	력더 하
אֶזְרָא (에즈라)	Ezra	以斯拉	以斯拉記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
נְחֵמְיָהוּ (느헤미야)	Nehemiah	尼希米	尼希米記	느헤미야	느헬야	느헤미 야

34) ‘여호수아’를 표기할 때는 ‘아’ 형태로 초성을 적었는데, ‘호세아’는 ‘호세ㅏ’로 표기하였다. 이것을 단순 오류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른 발음으로 인식한 것이다.

הסתר (에스테르)	Esther	以斯帖	以斯帖記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
איוב (이요브)	Job	約百	約百記	욥	욥	욥
סלמה (티릴림)	Psalms	詩篇	詩篇	시편	詩篇	시편
ילעם (미갈레이)	Proverbs	箴言	箴言	잠언	箴言	잠언
תלמוד (코헬레트)	Ecclesiastes	傳道	傳道書	전도	傳道	전도
שיר סודים (쉬르 하쉬림)	Song of Songs	所羅門歌	雅歌	아가	雅歌	아가
הישעיהו (이사야후)	Isaiah	以賽亞	以賽亞書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הירמיהו (이르미야후)	Jeremiah	耶利米	耶利米書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האיכה (에이카)	Lamentations	耶利米哀歌	耶利米哀歌	인가	哀歌	예레미야 인가
אזקיהו (이흐지키엘)	Ezekiel	以西結	以西結書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
דניאל (다니엘)	Daniel	但以理	但以理書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הושע (호세아)	Hosea	何西阿	何西阿書	호세아	호세아 34)	호세아
יואל (요엘)	Joel	約珥	約珥書	요엘	요엘	요엘
אמוס (아모스)	Amos	亞摩斯	阿摩司書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הירבוע (오바디아)	Obadiah	阿巴底亞	俄巴底亞書	옵아 디아	오밧야	옵아 디아
יונה (요나)	Jonah	約拿	約拿書	요나	요나	요나
מיכה (미카)	Micah	彌迦	彌迦書	미가	미가	미가
נחום (나훔)	Nahum	那鴻	那鴻書	나훔	나훔	나훔
חבקוק (하박국)	Habakkuk	哈巴谷	哈巴谷書	하박국	하박국	하박국

צפניה (즈파니아)	Zephaniah	西番雅	西番雅書	서반 이야	스반야	스반야
חגי (하카이)	Haggai	哈該	哈該書	학개	학개	학개
זכריה (즈카리아)	Zechariah	撒迦利亞	撒迦利亞書	세가 리아	스갈야	새가 리아
מלאכי (말라키)	Malachi	瑪拉基	瑪拉基書	말나기	말나기	말나기

〈표 5〉 구약 성경의 서명 대비

더 이른 시기에 출판된 중국어 성경들도 있으나 서명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 중국어 성경 번역본(쉐레셰브스키본과 문리화합본)을 선정하여 목록화하였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지명을 음역한 서명이 1권, 인명을 음역한 서명이 25권이다. 〈표 5〉에서 음영 표시된 25권의 서명이 인명을 음역한 서명이다.

구약 성경에서 지명을 음역한 것은 ‘출애굽기’ 뿐이다. ‘애굽’은 헬라스어의 ‘Αἴγυπτος(에킵토스)’를 중국어 성경에서 ‘埃及/àijí/’으로 음역하고, 한국어 성경에서 그것을 한국 한자음 ‘애굽’으로 표기한 것이다. 원전의 서명([이름들])은 본문의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 관습대로 본문의 첫 단어로 서명을 정한 예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글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Exodus’로 번역하였고, 중국어 성경에서는 어디로부터의 탈출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출애굽기(出埃及記[애굽(이집트) 탈출기])’라고 한 것이고, 이를 한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활용하였다. 성경의 서명에 많이 쓰인 ‘-기(記)’와 ‘-서(書)’는 번역된 앞 단어에 결합되어 [기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한자 접미사인데, ‘-기’, ‘-서’는 의역어에도, 음역어에도 자유롭게 결합되었다.

음역된 인명은 대부분 원전이나 영어 성경의 발음을 따르고, 서명의 형식은 ‘-기’나 ‘-상/하’로 나타내는 중국어 성경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레위기, 룻,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영어 발음과 철자를 의식하며 한글로 표기한 예이다. '여호수아'는 영어 발음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의 발음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명 음역어인 '애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구약 성경의 번역은 이미 공인역 신약을 완역한 후에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저본을 달리 볼 만큼 큰 차이를 드러내는 이표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음역과 의역이 혼합된 서명인 '출애굽기'만이 중국어 성경과 관련되고, 다른 음역어는 서양어의 발음을 음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신약 성경의 서명 대비

신약 성경 27권은 공인역본으로 『신약전서』(1906년)가 출판되기 전 개인 번역 자들에 의한 쪽번역서들이 간행되었다.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발행 년도	번역자	서명
1882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1882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 요안니복음 전서』
1883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 누가복음 테자헝적』
1883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1884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성서 마디복음』
1884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
1884	이수정(李樹廷)	『新約聖書馬太傳』
1884	이수정(李樹廷)	『新約聖書馬可傳』
1884	이수정(李樹廷)	『新約聖書路可傳』
1884	이수정(李樹廷)	『新約聖書約翰傳』
1884	이수정(李樹廷)	『新約聖書使徒行傳』
1885	이수정(李樹廷)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
1885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미쇼 서신』

1887	John Ross 번역팀	『예수성교전서』
1887	Henry Gerhard Appenzeller & Horace Grant Underwood	『마가의전헌복음서언해』
1890	H.G Appenzeller	『누가복음전』
1890	H.G Appenzeller	『보라달로마인서(保羅達羅馬人書)』
1891	Malcolm C. Fenwick	『요한복음전』 (로스 '요안니' 개정)
1892	H.G Appenzeller	『마태복음(馬太福音)전』
1892	James Scarth Gale	『스도헝전』
1893	Malcolm C. Fenwick	『약혼의기록헌터로복음』
1895	H.G Appenzeller	『마태복음』
1895	H.G Underwood	『누가복음』
1895	J.S Gale	『요한복음』
1895	J.S Gale	『스도헝전』
1896	H.G Underwood	『요한복음』
1896	H.G Appenzeller	『마태복음』
1896	H.G Appenzeller	『누가복음』
1896	H.G Appenzeller	『요한복음』
1896	H.G Appenzeller	『스도헝전』
1896	J.S Gale	『스도헝전』
1897	J.S Gale	『바울이갈라대인의게훈편지』
1897	William Benton Scranton	『야곱의공변된편지』
1897	W.B. Scranton	『베드로전서』
1897	W.B. Scranton	『베드로후서』
1898	H.G Appenzeller	『마태복음』
1898	H.G Appenzeller	『마가복음』
1898	H.G Underwood	『누가복음』
1898	J.S Gale	『스도헝전』
1898	W.B. Scranton	『로마인서』
1898	H.G Appenzeller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898	H.G Underwood	『필립보인서』

1898	William Davis Reynolds	『데살로니가인전후서』
1898	H.G Underwood	『골로시인서』
1898	H.G Underwood	『디이모데전서, 디이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1898	W.B. Scranton	『히브리인서』
1898	H.G Underwood	『요한일이삼유다서』
1899	성서번역사회	『에베소인서』
1900	성서번역사회	『요한묵시』
1900	성서번역사회	『신약전서』 시험역

<표 6> 한국어 성경 번역 초기에 쪽번역서 형태로 간행된 신약서들

<표 6>은 신약전서 공인역본(시험역(1900), 임시역(1904), 공인역(1906))이 간행되기 전까지 여러 번역자들에 의한 쪽번역서의 목록이다. 서명에 드러난 음역어를 보면, ‘요한/약훈/요안니’, ‘마가/말코’, ‘디모데/디이모데’, ‘필립보/빌립보’, ‘이비쇼/에베소’, ‘맛디/마테’ 등의 이표기가 확인된다. 공인역본 이후에는 적어도 목차의 음역어는 일관성 있게 표기되었다. 문제는 목차의 표기와 본문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 성경의 음역어 연구를 총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문까지 꼼꼼하게 대조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실물이 확인되는 로스의 요한복음은 세 개나 된다. 『예수성교 요안니복음 전서』(1882년),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1883년),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비쇼 서신』(1885년)인데, 본문에서는 요한에 대하여 ‘요안니’와 ‘요나’가 혼재되어 있다. 또, 펜워의 『약훈의 기록히디로복음』의 본문에서는 ‘요한’에 대하여 ‘약나’와 ‘약한’이 섞여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차적인 음역어 대비 연구로서 서명의 대비를 연구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 쓰인 음역어와의 총체적인 대비는 다른 논문에서 진행할 것이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의역된 서명은 ‘사도행전’ 하나뿐이고 나머지 서명은 지명 10권과 인명 16권으로 확인된다. 정리해 보이면 <표 7>과 같다.

헬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표자역본 (1852)	브리지만 (1864)	양격비 (1886)	양격비 (1889)	쉐레쉐브스키 (1902)	문리화합 (1919)	펜윅 (1919)	게일 (1925)
Tò katà Matthaïon Eúaggelion (토카타 마타이온 유앙겔리온)	Matthew	馬太傳福音書	馬太福音書	馬太福音	馬太福音	瑪太福音	馬太福音	마태복음	마태福音
Tò katà Mārkon Eúaggelion (토카타 마르콘 유앙겔리온)	Mark	馬可傳福音書	馬可福音書	馬可福音	馬可福音	瑪可福音	馬可福音	마가복음	마가福音
Tò katà Loukân Eúaggelion (토카타 루간 유앙겔리온)	Luke	路加傳福音書	路加福音書	路加福音	路加福音	路加福音	路加福音	로가복음	누가福音
Tò katà Iōannin Eúaggelion (토카타 이요안넨 유앙겔리온)	John	約翰傳福音書	約翰福音書	約翰福音	約翰福音	約翰福音	約翰福音	요한복음	요한福音
Práxeis Apóstōlon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Acts	使徒行傳	使徒行傳	使徒行傳	使徒行傳	使徒行傳	使徒行傳	스도행전	使徒行傳

Πρὸς Ρωμαίους (프로스 로마이우스)	Roma ns	使徒保 羅達羅 馬人書	達羅馬 人書	使徒保 羅達羅 馬人書	使徒保 羅達羅 馬人書	達羅瑪 人書	羅馬人 書	라마	로마
Πρὸς Κορινθίους α'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1 Corin thian s	使徒保 羅達 哥林多 人前書	達哥林 多前書	使徒 保羅達 哥林多 人前書	使徒保 羅達 哥林多 人前書	達哥林 多人前 書	哥林多 人前書	가림다 전	고린도 前
Πρὸς Κορινθίους β'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2 Corin thian s	使徒保 羅達哥 林多人 後書	達哥林 多後書	使徒 保羅達 哥林多 人後書	使徒保 羅達哥 林多人 後書	達哥林 多人後 書	哥林多 人後書	가림다 후	고린도 後
Πρὸς Γαλάτας (프로스 갈라타스)	Galat ians	使徒保 羅達加 拉太人 書	達加拉 太人書	使徒 保羅達 加拉太 人書	使徒保 羅達加 拉太人 書	達加拉 太人書	加拉太 書	가람태	갈나디 아
Πρὸς Ἐφεσίου (프로스 에페시우스)	Ephes ians	使徒保 羅達以 弗所人 書	達以弗 所人書	使徒 保羅達 以弗所 人書	使徒保 羅達以 弗所人 書	達以弗 所人書	以弗所 書	이볼소	에베소
Πρὸς Φιλιππησίου (프로스 필립페시우스)	Philip pians	使徒保 羅達腓 立比人 書	達腓立 比人書	使徒 保羅達 腓力比 人書	使徒保 羅達腓 力比人 書	達腓立 比人書	腓立比 書	비립비	빌립보
Πρὸς Κολοσσαεῖς (프로스 콜롯사이에스)	Colos sians	使徒保 羅達哥 羅西人 書	達哥羅 西人書	使徒 保羅達 哥羅西 人書	使徒保 羅達哥 羅西人 書	達哥羅 西人書	哥羅西 書	가라셔	골노새
Πρὸς Θεσσαλονικεῖς α' (프로스 테살로니케이 스 알파)	1 Thess alonia ns	使徒保 羅達帖 撒羅尼 迦人前 書	達帖撒 羅尼迦 人前書	使徒 保羅達 帖撒羅 尼迦人 前書	使徒保 羅達帖 撒羅尼 迦人前 書	達帖撒 羅尼迦 人前書	帖撒羅 尼迦前 書	텃살라 니가전	데살로 니가前



Πρὸς Θεσσαλονικεῖς β' (프로스 테살로니케이스 베타)	2 Thessalonians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使徒保羅達帖撒羅尼迦人後書	達帖撒羅尼迦人後書	帖撒羅尼迦後書	텃살라니가후	데살로니가後
Πρὸς Τιμόθεον α'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	1 Timothy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使徒保羅達提摩太前書	達提摩太前書	提摩太前書	테마테전	디모데前
Πρὸς Τιμόθεον β'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	2 Timothy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使徒保羅達提摩太後書	達提摩太後書	提摩太後書	테마테후	디모데後
Πρὸς Τίτον (프로스 티톤)	Titus	使徒保羅達提多書	達提多書	使徒保羅達提多書	使徒保羅達提多書	達提多書	提多書	테다	디도
Πρὸς Φιλιμόνα (프로스 필레모나)	Philemon	使徒保羅達腓利門書	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使徒保羅達腓利門書	達腓利門書	腓利門書	비리문	빌레몬
Πρὸς Ἑβραίους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Hebrews	使徒保羅達希百來人書	達希百來人書	使徒保羅達希百來人書	使徒保羅達希百來人書	達希百來人書	希伯來書	희백리	히브리
Ἐπιστολὴ Ἰακώβου (에피스틀레 이야코부)	James	使徒雅各書	雅各書	使徒雅各書	使徒雅各書	雅各書	雅各書	야각	야고보
Ἐπιστολὴ Πέτρου α' (에피스틀레 페트루 알파)	1 Peter	使徒彼得前書	彼得前書	使徒彼得前書	使徒彼得前書	彼得前書	彼得前書	피득전	베드로前

Ἐπιστολή Πέτρου β' (에피스토লে 페트루 베타)	2 Peter	使徒彼 得後書	彼得後 書	使徒彼 得後書	使徒彼 得後書	彼得後 書	彼得後 書	피득후	베드로 後
Ἰωάννου α' (이요안누 알파)	1 John	約翰第 一書	約翰第 一書	使徒約 翰第一 書	使徒約 翰第一 書	約翰第 一書	約翰一 書	요한一	요한一
Ἰωάννου β' (이요안누 베타)	2 John	約翰第 二書	約翰第 二書	使徒約 翰第二 書	使徒約 翰第二 書	約翰第 二書	約翰二 書	요한二	요한二
Ἰωάννου γ (이요안누 감마)	3 John	約翰第 三書	約翰第 三書	使徒約 翰第三 書	使徒約 翰第三 書	約翰第 三書	約翰三 書	요한三	요한三
Ἐπιστολή Ἰούδα (에피스토লে 유다)	Jude	猶大書	猶大書	使徒猶 大書	使徒猶 大書	猶大書	猶大書	유대	유다
Ἀποκάλυψις Ἰωάννου (아포칼립시스 이요안누)	Revel ation	傳道約 翰默示 錄	約翰默 示錄	使徒約 翰默示 錄	使徒約 翰默示 錄	默示錄	啓示錄	묵시	默示

<표 7> 신약 성경의 서명 대비

<표 7>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이 인명으로 만들어진 서명이다. 주목되는 서명은 현대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이다. 초기 번역본에서는 ‘묵시’로 되어 있다. ‘-록(錄)’도 붙이지 않았고, ‘요한’이나 ‘약한’이라는 인명을 붙이지도 않았다. 이는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활용된 중국어 성경이 쉘레쉴브스키(1902년) 번역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대 한국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서명은 원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중국어 성경보다는 원전을 저본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대 한국어 번역 성경의 목차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 <표 8>과 같이 4종의 주요 신약 전서를 목록화하였다.

초기 한국어 번역 한국어			
공인역본(1906)	펜윅(1919)	게일(1925)	개역본(1938)
마태 복음 <sup>35)</sup>	마태복음	마태福音	마태복음
마가 복음	마가복음	마가福音	마가복음
누가 복음	로가복음	누가福音	누가복음
요한 복음	요한복음	요한福音	요한복음
스도 히전	스도히전	使徒行傳	사도행전
로마 인서	라마	로마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가림다 전	고린도 前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가림다 후	고린도 後	고린도후서
갈나대 인서	가랍태	갈나디아	갈나디아서
에베소 인서	이불소	에베소	에베소서
빌립보 인서	비립비	빌립보	빌립보서
골로새 인서	가라서	골로새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텃살라니가 전	데살로니가 前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텃살라니가 후	데살로니가 後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데미태 전	디모데 前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데미태 후	디데모 後	디모데 후서
디도 서	데다	디도	디도서
빌네몬 서	비리몬	빌네몬	빌네몬서
히브리 인서	희빅리	히브리	히브리서
야고보 서	아각	야고보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피득 전	베드로 前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피득 후	베드로 後	베드로 후서
요한 테일 서	요한 一	요한 一	요한 一서
요한 테이 서	요한 二	요한 二	요한 二서
요한 테삼 서	요한 三	요한 三	요한 三서
유다 서	유대	유다	유다서
요한 묵시	묵시	默示	요한계시록

<표 8> 신약 성경의 역대 한국어 서명 대비

35) 보통 이 시기 문서, 특히 목차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약전서』(1906)는 서명 목차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작성하였다.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초의 공인역본에서는 음의겸역어<sup>36)</sup>로 ‘요한 묵시’로 쓰이다가 개인 번역자들이 사역본으로 간행한 성경에서는 인명이 빠져 있고, 공인 개역본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형태로 쓰이기 시작했다. <표8>을 보면 펜워 번역본이 다른 번역본과 유독 다른 음역어가 많은데, <표7>을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펜워 번역본은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한국식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다. 음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펜워본은 당시 많이 읽히던 셰라셰 브스키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초기에 간행된 신약전서 중 펜워본을 제외한 나머지 번역본의 음역어는 헬라스어 성경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전서가 아닌 쪽복음서 중에서는 아펜젤러 번역본이 <표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번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번역서에서 외래어에 대한 음역어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나 해석학적 논의와 무관한 표기의 문제와만 관련된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현지의 문화가 반영된 언어로 의역되지 않고 음차 번역되는 외래어는 국한혼용문에서도 한글로만 표기된 것이 한국어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표면적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영역을 한정하여 성경의 66권 서명(書名)을 살피고, 그 중 음역어를 살핀 것은 논문의 양적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텍스트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 성경의 목차, 즉 서명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작업으로, 개역 성경(1938년) 이전의 초기 한국어 번역

36) 외래어를 음의겸역(音意兼譯)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어보다는 표의어인 중국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Coca-Cola’를 ‘可口可樂/kěkǒukělè/(의역+음역), [입에 맞고 즐기기가 좋다]’로, ‘YouTube’를 ‘油管/yóuguǎn/(음역+의역), [당신의 브라운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 전서의 서명을 전산화하고, 음역어의 다양한 형태 목록을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세로쓰기로 집필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성경의 음역어들을 살피는 것은 번역의 저본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성경 번역에 기원을 둔 지명이나 인명 등의 외래어 표기의 초기 이표기 형태 및 정착 과정을 살피고, 추후 온라인상에서의 연관어 검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한국어 성경에서 서양의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양어의 음가를 그대로 살려 쓰는 방법과 먼저 번역된 중국어 성경의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다시 같은 한자에 대하여 중국식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인지, 한국식 한자음을 표기한 것인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중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 번역자마다 다를 수 있어 다시 다양한 형태의 표기가 확인된다. 또, 언어 내적인 문제나 국어사적 변천 과정상의 문제로 한글 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어두 자음군 표기나 소실 문자의 문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표기의 현상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국어학적 문제들은 공인역본 이전의 쪽번역서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영역이 66권 서명의 대비 작업으로 한정되어 쪽번역서의 표기들을 대상으로 국어학적 표기의 문제를 깊이 다룰 수는 없었다. 한국어 성경 번역 초기에 ‘문자 선교’와 정확한 텍스트 번역 작업을 긴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고유명사의 표기가 철자별 대응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반면, 문맹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낭독해 주는 ‘말씀 선교’를 염두에 두고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철자가 아닌 음절 중심의 음성 발음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비되지 않은 표기 흔재의 결과가 오히려 한국어 초기 번역 성경의 저본을 판정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초기 한국어 성경 텍스트는 현대 한국어의 체계가 형성되고, 한글 글쓰기가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문헌이다. 이것을 전산화한 텍스트는 약 100년 동안의 한국어의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성경 텍스트의 전산화를 전제로 다양한 분석 방법과 차별화된 주제의 접근으로 한국

어 성경이 학문 영역의 경계 없이 연구되고, 자료와 연구의 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역대 성경 어휘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검색어를 현대의 표준어 ‘다윗’으로 입력하면, 그것의 이표기 ‘싸윗, 다비데, 다빗’ 등이 문맥과 함께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다국적 성경과도 연계되어 유용하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 성경, 국한문, 선한문, 혼용문, 하이브리드 표기, 번역, 음역, 외래어 표기법, 원전, 저본, 번역본

### <참고문헌>

- 구본관·오현아(2011),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문법 교육』 제14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37쪽.
- 김남숙(2007), 「성서에서 본 한·일 외래어표기의 변화양상: 루카복음 중 한·일·중의 인명·지명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권 2호, 한국번역학회, 9-30면.
- 김선철(2008), 「외래어 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언어학, 16-2, 대한언어학회, 207-232면.
- 김영덕(1969), 「언해문체와 성서 번역체와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4, 55-77면.
- 김영덕(1971), 「한국 초기성서 번역체 연구: 전통적이며 개화기의 선구적인 문체로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8, 9-33면.
- 김옥동(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동국문화사.
- 김윤경(1960), 「주시경선생전기」, 『한글』 126, 한글학회, 579-598면
- 김정남(2011), 「AABB형 반복 합성어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의 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23면.
- 김정우(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 연구』 9-2, 한국번역학회, 67-93면.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출판부.
- 나채운(1990), 『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 민영진(1998),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20-167면.
- 민현식(1994ㄱ),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I」, 『국어교육』 83·84, 국어교육학회, 113-152면.
- 민현식(1994ㄴ),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II」, 『국어교육』 85, 국어교육학회, 101-123면.

- 민현식(2011),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논문집』, 188-235면.
- 박영준(2006), 「한국어·중국어·일본어의 외래어 연구 :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3-235면.
- 박창원(2008), 「외래어 표기법의 된소리 표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8-4, 국립국어원, 87-103면.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원, 59-102면.
- 서정수(1988), 「서구 외국말의 문제」, 『국어생활』 14, 국어연구소, 35-45면.
- 송민(1973), 「19世紀 天主教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 합집, 국어국문학회, 291-295면.
- 申有植(2000), 「개화기 외래어 표기법 연구」, 『언어학연구』 4, 한국중원언어학회, 281-295면.
- 오미정(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래어』, 월인.
- 오카와 다이스케(2010), 「한국어와 일본어의 영어 외래어 수용 양상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 유경민(2019), 『성경과 한국어』, 전주대학교출판부.
- 유경민(2020), 「사상의 정착과 번역어의 선택에 대한 언어 문화적 연구: '사도', '선지자', '교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4집, 117-146면.
- 유창돈(劉昌惇)(1967). 동사사(動詞史) 고구(考究).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찬 《동방학지(東方學志)》제8집. 171~210.
- 유창균(1967), 「국역 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9-76면.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 이덕주(1985),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특히 성서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409-505면.



- 이병근 외(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억(1982), 「외래어 표기법 문제의 종합 검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7-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7-75면.
- 전무용(2002),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 90-103면.
- 지춘수(1971), 「초기 성경에 나타난 정서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19-41면.
- 한중수(1997), 『개역성경과 헬라이어 표준 원문 비교연구 : 서로 다른 점과 삭제된 부분들』, 기독교문서선교회.
- 洪允杓(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近代篇 I)』, 태학사.
- 히로 타카시(2006), 「『新約全書 국한문』의 저본에 대하여」,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509-549면.
- Michael Lewis(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웹 사이트>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

([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

다국어 인터넷 성경 검색([www.holybible.or.kr](http://www.holybible.or.kr))

온라인 성경 원문 사이트

([www.bible4u.pe.kr](http://www.bible4u.pe.kr), [www.biblegateway.com/versions](http://www.biblegateway.com/versions))

이중어사전(<http://corpus.pusan.ac.kr/dicSearch/search.aspx>)

중국어본 성경 사이트([bible.fhl.net/ob](http://bible.fhl.net/ob))

[Abstract]

## A Contrast Study of Transliteration of a book's name for the Judgment of Source Text Used in Early Korean Bible Translation

Yu, Kyung-min

I show how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vernacular grammar and styles during a time of flux in Korean languages. At the time, in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ies, Korean languages were undergoing a variety of changes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the popularisation of Korea's indigenous alphabet Hangeul. Since the original Bible was written, the Bible has been continuously translated, revised and retranslated by period and language. Words and styles are being refined so that more people can read them more accurately in various cultures.

The Bible is a language source consisting of 929 chapter 23,214 verse in Old Testament books 39 and 260 chapter 7959 verse in New Testament books 27. The New Testament alone is a text of about 130,000 words, and one original text is translated into language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plores the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in the Bible.

The names of 66 books in the Bible have many Transliteration, especially related to names of people or places. So, it became the subject of my study on the Transliteration of the Bible. In the case of the Korean Bible, the names of 66 books have been unified since 『성경전서 개역』(1938). However, Transliterations were written differently in previous translations. What is clear is that Loanwords in the Bible are always written only in Hangeul even in the

Hybrid Script of Korean and Chinese.

So, I will examine how the Korean Bible accepted the notation of the Original text or the Source Text, focusing on the early translation, and explain how the Orthography of Loanwords in the modern Korean Bible was established. Howeve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proper nouns in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 proper nouns in the actual text are not consis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of the Transliteration of the Bible are us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Source Text.

**【Key words】** : Korean Bible, Kuk-Hanmun, Seon-Hanmun, Mixed Script, Hybrid Script, Translation, Transliteration, Orthography of Loanwords, Original Text, Source Text, Target Text

---

---

## 유경민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친잠로 303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cherubyu@jj.ac.kr

---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6일에 투고되었으며, 2021년 3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1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www.kci.go.kr